

# 李奎報의 雪詩 評說

金 周 漢

〈목 차〉

I. 友情如雪

III. 袁安壯雪

II. 把酒問雪

## I. 友情如雪

李奎報(戊子 十二月 十六日 癸卯生, 高麗 毅宗, 二十二年, 南宋 孝宗 乾道 四年, 大金 世宗, 大定 八年, 四元1168~辛丑 九月初二日, 高麗 高宗 二十八年, 南宋 理宗, 淳祐 元年, 蒙古 太宗 十三年, 西元 1241卒)는 字 春卿, 號 白雲으로 쓴 고려시대의 詩文家이다. 詩를 지을 때는 九不宜體를 버린 뒤에야 시다운 시를 지을 수 있다고 했으며, 또 詩는 「清警, 雄豪, 妍麗, 平淡」한 體格을 雜用한 뒤에 衆體가 具備되어 評家들이 「不能以一體名之」 곧 어느 한 가지 체격만 갖춘 시로 규정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sup>1)</sup>

이규보는 雪詩를 많이 지었다. 이 소論에서는 이규보의 雪詩 가운데서 任意로 골라내어 評說해 보고자 한다. 東國李相國集은 全集 41卷과 後集 11卷, 共 53卷으로 된 龐大한 分量의 冊이다. 이 53권 안에 모두 43題 가량의 雪詩가 있다. 이 43題 가운데서 友情과 관련된 것, 눈 그

1) 李奎報 論詩中微旨略言, 東國李相國全集 卷 二十二 雜文 東國文化社 檀紀 4291. 2. 20 서울. 以下 全集으로 表함.

자체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한 것, 눈과 늙음을 결부시킨 것, 그리고 눈을 形容하는 技巧인 面이 강조된 것 등을 가려 評說하려고 한다.

友情如雪. 곧 우정에 얽힌 눈을 故事를 통해 형용한 雪詩를 보기로 하겠다. 〈吳德全東遊不來以詩寄之(吳世才字德全)〉<sup>2)</sup>가 그것이다. 옮겨 본다.

東海 쪽 山길 멀기도 하여,  
 한 번 떠난 유랑 길 하늘 끝이라.  
 황금 벌판 영그는 논벼 닭과 오리가 즐기는데,  
 늙은 가을 벽오동 나무엔 봉황새 수심에 겨워라.  
 뿌연 내 서린 물결 오나라 사대, 돌아오지 않으니,  
 눈 덮인 달밤에 섬계 방문 기약하리.  
 태평성대 버림 받을 일 결코 없을 것이오니,  
 늙을 날 생각 말고 맑은 물에 낚시나 드리우소.  
 海山東去路悠悠, 一落天涯久倦遊.  
 黃稻日肥雞鷺喜, 碧梧秋老鳳凰愁.  
 烟波不返遊吳棹, 雪月期浮訪剡舟.  
 聖代未應終見棄, 莫思垂白釣清流.

吳世才는 字를 德全이라고 한다. 이규보보단 34,5세 年上이다. 이규보의 '先輩' 가운데 七人이 一時의 豪俊으로 자처하면서 술 마시고 시 짓기를 능사로 삼아 旁若無人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뒤에야 조금 수그러 들었다. 이규보 나이 19세 때 오세재가 「忘年友」로 사귀기를 허락하고 그 선배들의 모임에 데리고 가곤 했다고 한다. 언젠가 오덕전이 東都 곧 慶州로 간 뒤 이규보 혼자 그 모임에 갔더니 李清卿이 이규보를 보고 자네의 덕전이 경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자네가 그 자

2) 全集 卷一, 古賦 古律詩.

리를 메우지? 라고 했다. 이 때 이규보는 「七賢」이 조정의 벼슬자리인가? 빈 자리는 채우게? 晉 竹林七賢중에 嵇康·阮籍이 죽은 뒤 그 자리가 이어 받은 사람 있던 말 못 들었다고 했더니 모두 크게 웃더라는 얘기가 있다.<sup>3)</sup>

科擧試에 늘 낙방만 거듭하여 울적하던 次에 七賢이라 이름하면서 「飲酒賦詩 旁若無人」하던 오세재가 급기야는 落拓不遇한 사람들의 안식처였던 경주로 훌쩍 떠나 버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규보가 詩를 지어 위로코자 했던 것이다. 위의 詩는 用事의 出處問題로 徐居正에게서 指摘받은 적도 있지만, 不平之士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훌륭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詩에 引用된 故事는 晉의 王徽之(字 子猷)와 戴逵(字 安道)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왕휘지의 「曠逵」를 유감없이 발휘한 얘기다. 휘지가 언젠가 山陰에 있을 때, 밤 눈이 그치고 달빛은 휘영청, 사방이 희기만 했다. 이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左思(字 太沖, 西元?~306 左右)의 招隱詩를 읊고 있다가 갑자기 戴逵 생각이 났다. 대규는 그 때 剡溪에 있었다. 밤을 타 작은 배에 몸을 얹고 대규가 있는 섬계로 갔다. 밤을 새워 겨우 도착했으나 집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휘지 대답하길 본디 흥이 있어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온 것이다. 하필 安道를 볼 것까지 있겠는가? 라고.<sup>4)</sup> 左思의 초은시 역시 世俗에 汨沒하는 사람을 山林으로 불러 들이는 내용

3) 全集 卷二十一, 說序. 七賢說「先輩有以文名世者 某某等七人 自以爲一時豪俊 遂相與爲七賢 蓋慕晉之七賢也. 每相會飲酒賦詩 旁若無人 世多譏之, 然後稍沮 時子年方十九 吳德全許爲忘年友每携詣其會, 其後德全 遊東都 子復詣其會 李濟卿日子曰 子之德全東遊不返, 子可補耶 予立應曰七賢豈朝廷官爵而補其闕耶. 未聞嵇阮之後 有承之者, 聞座皆大笑……」

4) 王徽之, 列傳第五十 晉書卷第八十, 鼎文書局印行 中華民國 69年 3月 初版 台灣台北「徽之字子猷……嘗居山陰 夜雪初霽 月色青朗, 四望皓然. 獨酌酒詠左思招隱詩, 忽憶戴逵. 逵時在剡, 便夜乘小船詣之. 經宿方至. 造門不前而反. 人問其故, 曰 本乘興而行. 興盡而反, 何必見安道耶……」

의 작품이다.<sup>5)</sup>

晉 竹林七賢은 物理力이 無慈悲하게 판을 치던 시대에 隱倫韜晦하면서 性命을 苟全하고자 했는데, 李奎報가 살던 고려도 例外가 아니었다. 鄭仲夫의 亂으로부터, 崔忠獻·崔怡를 거치는 百餘年 동안은 참으로 亂倫 그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그 뒤 高麗의 文士들은 草野山林에 숨기를 바랐고 또 「隱」이란 글자를 號에 많이 썼던 것이다.

최충헌은 아우 忠粹를 죽이고 그 사위마저 유배시켜 죽게 만들었고, 충헌의 아들 怡는 그 어미를 毒殺까지 했다. 정중부 이하 武夫들의 「相斫」은 피비린내를 진동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물론 이런 亂을 招來케 한 것은 文士의 책임이 컸다 해도 相斫의 結果는 엄청난 것이었다.

宗廟와 社稷을 들먹거리면서 百姓들을 組織의 그물 속으로 옴아 댔지만 그 종묘와 사직이 극소수를 위한 것일 때 일반 老百姓들 그 누구가 순순히 극소수의 속임수를 들어 주었던가? 보편성을 상실한 理念은 거짓 理念일 뿐, 많은 백성을 설득 수궁시키기에는 이미 力不足이다. 無慈悲의 惡循環만이 세상의 生意와 生機를 죽일 뿐이다. 그 무엇이 生命世界 人文世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滔滔皆是의 黑暗期에 「其默足以容」<sup>6)</sup>일 수 있는 것일까? 理性, 良知는 완전히 마비되고 殺伐만이 판을 칠 때 몸을 아끼는 것이 도리어 이 人文世界를 위해서 좋을 경우가 있을까? 알지 못할 노릇이다. 「一陽初動」만 믿고 두 손 마주 잡고 세월만 보내고 있어야 할까? 「聖代未應終見棄」를 얼마나 믿어야 할까? 「莫思垂白釣清流」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聖代」는 이규보가 말한 것일 뿐이다. 그것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일 것이다. 〈七賢說〉의 내용으로 봐서 오세재가 경주로 간 나이는 55, 6세

5) 招隱詩 蕭統. 文選.

6) 中庸. 第二十八.

정도로, 이규보 20세 전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고려 조정은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忘年友」 오세재를 위한 정성은 끔찍하지만 생각처럼 「未見棄」할지는 미지수이다. 잊지 않고 이런 詩를 써서 보내 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 하겠다.

〈雪中訪友人不遇〉<sup>7)</sup>를 보자.

눈빛은 종이보다 더 흰데,  
막대를 들어 이름을 쓴다.  
바람이 휩쓸어 가지 말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라.  
雪色白於紙, 舉鞭書姓字.  
莫教風掃地, 好待主人至.

「雪色白於紙」. 그 어떤 종이가 눈빛보다 더 흰지 모르겠다. 아마도 종이의 빛깔보다 더 희다는 것은 당연하지 싶은 데도 이규보는 짐짓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혹 눈빛보다 더 흰, 새하얀, 눈부시는 종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눈빛의 새하얀 정도를 당할 종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白」에 있다. 왜 흰빛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이 詩는 아마도 이규보 31세 전후해서 지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규보의 호가 白雲이다. 24세 때 부친상을 당하고 天磨山에 寓居할 때 白雲이라 自稱했고, 25세 때는 〈白雲居士語錄〉과 〈白雲居士傳〉을 지었다.<sup>8)</sup> 「白」을 좋아하던 시기와 5, 6년을 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걱정하고 純粹를 추구하던 白雲이기에 白雲의 白을 좋아하지 않았나 싶다. 찾아갔던 그 주인도 白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34세 쯤 지은 詩에 〈子猷訪戴〉가 있다. 눈과 子猷 곧 王徽之, 戴逵

7) 全集 卷第八. 古律詩.

8) 全集 年譜.

곧 戴安道와는 잘도 어울린다. 하나의 定念이 되어 못 詩人들의 消日遣興 거리로 제격이다. 屏風에 써 넣은 작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모두가 中國의 故事들인데 스스로 없이 사용하고 있다. 崔滋의 「書同文車同軌」란 주장이 一般化하고 있던 판국이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옮겨 본다.

사람 찾는 맛은 눈 덮인 섬계가 제 격인가?  
 만약 서로 만났다면 한 바탕 웃었을 것을.  
 흥이 다해 샅대 돌려 돌아 왔단 말 말라.  
 문 앞에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 온 것 의미 무궁한 것을.  
 訪人情味雪溪中, 若便相逢一笑空。  
 莫道興闌迴去棹, 造門直返意無窮。

이 詩는 〈題任君景謙寢屏六詠, 與尹同年等數子同賦〉<sup>9)</sup>란 제목의 第二首이다. 남의 병풍에 써 준 것이지만, 흥이 다해 노를 저어 돌아 갔다는 것보다 문 앞에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서 나왔다는 것에 무궁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나온다는 것. 정말 아슬아슬한 흥미를 자아낸다. 흥이 다해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로 흥미롭기 그지 없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고 남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까지 짓고 寢屏으로까지 만들어 방에 세워 두었으니 中國向念은 어지간 했다 하겠다.

庚辰年 이규보 53세 전후해서 지은 〈路上詠雪二首〉<sup>10)</sup>를 보기로 한다. 30代の 雪詩하고는 자못 그 意趣가 다르다. 세월이 말해 주는가?

꽃을 깊이 연구했나? 아로새김 교묘하네.  
 춤을 배웠나, 멋지게도 훑날린다.

9) 全集 卷十一. 古律詩.

10) 全集 卷第十六. 古律詩.

내 구레나무 벌써 몽땅 흰빛이네.

그런데 무엇 땀에 다시금 와서 흰 점을 찍는가?

學花工剪刻，解舞巧徘徊。

我髮會渾白 何須更點來？

처음엔 멋 모르고 소매자락에 사뿐히 날아 앉는 것 좋아서,

도무지 몸 가리는 장바 챙기는 걸 잊어 버렸지.

점점 쌓여서 차가운 꼬깔 내리 눌러서,

이제사 되려 샷갓 쓴 사람 우산 든 사람 부러우이.

初愛輕飄袂，都忘備障身。

漸堆寒弁重，翻羨笠簷人。

남의 일로만 막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젠 바로 자신의 일로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나? 50代에 들어서 부쩍 雪詩가 많아진다. 무슨 까닭인가? 이제 늙었음인가? 이전엔 白雪의 白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그저 吳世才와 유관한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고 남의 병풍이나 그려 줄 그런 것일 뿐이었는대 말이다.

네 구레나무 수염 벌써 흰빛으로 변했는데 무엇 때문에 흰 눈이 날아와서 점점이 흰 빛을 보태 주나? 벌써 늙음을 한탄하는 것인가? 눈이 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가위질하여 아로 새긴 게 어찌 그리도 곱단 말인가? 춤은 또 언제 배워 익혔길래 저렇듯 예쁘게도 배회할까? 그러나 이런 눈 자체의 모습과 눈이 필필휘휘 휘날리는 자태에 홀딱 반했다가 허영계 섰 구레나무 수염을 생각하니 서글프기 짝이 없어졌는가? 눈이 야속하게 생각되는 것은 또 무슨 일이나?

가볍게 사뿐사뿐 소매자락에 내려 앉는 눈송이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런 흰눈을 흠뻑 뒤집어 쓰고 싶었으리라. 그래서 우장도 없이 집을 나섰던 것인가? 사랑도 한 때일 뿐, 추운 날 꼬깔에 내려 쌓이는 눈발 그 눈발이 이젠 거북해서 되려 샷갓 쓴 사람 우

산 받쳐 든 사람이 부러워진다. 뭘 하고 살았던가? 50 平生 뭘 했던가? 詩를 제대로 썼던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던가? 재산을 제대로 모았던가? 눈만 보고 좋아할 나이는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인가? 나에게 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꼬리를 물고 자신을 파고 드는 것이다.

## II. 把酒問雪

〈詠雪〉<sup>11)</sup>이란 詩를 보자.

이제나 예나(눈을) 형용한 말이 이미 낡아 버려.  
 새로 의미를 창조하여 앞 사람을 타도하고 싶구나.  
 어찌 알았으리 너(눈)가 내 마음을 괴롭힐 줄.  
 詩 속에 들어오지 않고 구레나루에 들어와 새삼스러운가?  
 今古形容語已陳，欲裁新意倒前人。  
 豈知爾反令心苦，不入詩來入鬢新。  
 구레나루에 들어온 새로운 흔적 모두가 눈이거니,  
 비유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이는 서로 같음이네.  
 다만 한 가지 같지 않은 곳이 있거니  
 구레나루 위의 것은 녹기 어려운데, 너는 녹기 쉬워.  
 入鬢新痕都是雪，不勞鬢況此相同。  
 唯餘一段未同處，鬢上難融汝易融。  
 녹으면 흐르는 물이 되고, 일면 얼음이 되어  
 변화가 무궁함은 오직 너만이 가능하구나.  
 눈이되면 내 두 쪽 구레나루의 흰 빛과 다를 수 있지만  
 얼음이 되어서는 나 한 마음 맑은 것을 배우리라.  
 融成流水凍成冰，變化無窮獨爾能。

11) 全集 卷第十六. 古律詩.

作雪爭吾雙鬢白，爲氷學我一心澄。

三首의 七絶로 된 詩다. 첫 수에서 말한 「新意」는 이규보가 주장한 詩論의 新意와 같은 것이다. 이규보는 晋康侯 崔忠獻과 晋陽侯 崔怡 父子의 時代를 살았던 文人이다. 晋康侯는 周易 晋卦의 一句다. 康으로 晋 곧 나아가게 하는 侯란 말이다. 太康의 세계 또는 小康의 세계를 向해 나아가도록 할 主人翁이라고 自負·自任하는 心態를 표시하는 말이다.

王을 밀어내고 侯가 專橫하던 시기에 자신을 進강후 또는 進양후라고 자임했을 때는 뭔가 보여 줘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新」이란 글자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런 趨勢에 맞추어 당시의 文人들도 作文作詩코자 했을 것이다. 孟子가 말한 바 「上有好之者，下必有甚焉者」를 생각할 때 이규보를 위시한 文人들의 作詩·作文의 태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詩에는 詩 나뉠의 脈이 있어 自生自化하지만, 전체 觀세 돌아가는 데 따라서 영향을 입게 마련이다. 進강후·進양후 집단이 「新」局을 보여 주려고 애썼을 것이고 文人들도 이 기류에 편승했을 것이다. 당시는 文人들이 國事에 참여했기에 더했다고 할 수 있다. 自省을 기대할 수 있긴 해도 사람에게서 만족할 만한 자성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규보는 새 세상을 바랐고 새로운 詩도 바랐다. 새하얀 눈빛 같은 세상을 바랐고 새로운 詩도 바랐다. 새하얀 눈빛 같은 세상을, 시를 바랐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새하얀 눈빛 같은 신선함이 詩에 담겨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前人을 打倒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눈빛이 구레나루에 드러와 버린 것이다. 시 속에 담겨야 할 것이 구레나루에 와서 霜鬢, 雪鬢을 만들었다. 얼마나 한탄스런 일인가? 절묘한 비유법을 쓰지 않아도 구레나루의

흰빛과 눈의 흰빛은 마찬가지로지만 틀린 게 하나 있다. 구레나루의 흰빛은 녹이기 어렵지만 눈빛은 녹이기 쉬운 것이다. 녹이면 물, 얼면 얼음 따라서 「물→눈→얼음」의 순환으로 변화가 무궁하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눈이 되었을 때 구레나루의 흰빛과 다를 수 있지만 얼음이 되었을 때 이규보 자신의 맑은 마음씨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능쳤다. 構思造意가 他人의 雪詩와 다르다. 변화무궁함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진다. 술잔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면서. 〈雪泳〉<sup>12)</sup>을 보자.

물을 재단해서 공중을 훑날리는 꽃을 만들었나?

순식간에 다시 물이 되는구나.

이 일 너무나도 허깨비 같아.

생각컨데 하늘은 결코 이 같지 않을 것이네.

늘 의심하기는 빗물이 허공에서 떨어져

차가운 위력에 퍽박 받은 게지.

중간에서 얼어 꽃모양으로 엉키니

우연히 예쁜 꽃 봉오리 닮았을 뿐.

이 같이 빗물에서 변화된 것이라면

꽃모양으로 이처럼 새긴 자 누군가?

자세히 여섯 모 솜씨 관찰하니,

하늘 솜씨로 된 게 틀림없네.

하늘이 진정 허깨비인가?

끝내 그 의미 측량할 길 없네.

햇빛 보면 녹아서 죽이 되어

도리혀 물웅덩이 물 같이 되네.

비록 다시 꽃이 되고자 하나

어찌하랴 벌써 땅에 스며든 것을.

하늘의 작용 신비로와 물을 길이 없어.

12) 同註 11).

술반 차리고 한잔 술로 취할 뿐이라네.

剪水作浮花，須臾復爲水。

此甚似幻戲，想天必不爾。

常疑雨墮空，苦逼寒威被。

半路凍凝華，偶肖瓊葩耳。

若是雨所化，剪刻者誰是。

詳看六出巧，定自天工費。

天果幻戲耶，終未測其意。

見日融成汁，還與雨潦似。

雖欲復爲花，其奈已淪地。

天機秘難詰，置酒但一醉。

50代의 늙음을 눈을 끌어 와서 집요하게 묻고 있다. 비가 허공중에서 떨어지다가 찬 기운을 만나 아름다운 꽃모양이 된다고 했다. 빗물이 변화해서 된 것이라고 하지만 여섯 모로 아름다운 꽃을 새겼으니 그 누구의 솜씨란 말인가? 하늘이 과연 허깨비인가? 그 뜻을 그 의미를 알 길이 없다. 햇빛 보면 녹아서 물이 되어 길바닥에 고인 흙탕물 같이 되곤 다시는 꽃 모양이 되지 못한다. 신비스런 天機 물을 길 없어 술상을 마주하여 취할 뿐이라고 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기상학의 기초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文人으로 氣象學의 신비스런 작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자세「新意」를 파고드는 자세라고 하겠다. 그러나 햇빛에 녹아 땅으로 스며들고 나면 다시는 눈이 될 수 없다는 표현에서 구레나무의 흰빛은 녹이기 어렵다는 嘆老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李白의 〈把酒問月〉을 연상케 한다. 〈二月雪〉<sup>13)</sup>을 보자.

13) 同註 11).

이월 달은 부드럽게 녹아 기운이 펼쳐지려는데,  
 여러 날 눈을 뿌리니 무슨 탓인지 모르겠네.  
 미친 바람이 봄 솜씨를 풀어 놓아서,  
 매화를 한도 없이 만들어 내는가?  
 二月融怡氣欲舒，連霄放雪意何如？  
 狂風應散春工手，無限梅花剪出餘。

〈雪詠〉에서는 그냥 꽃, 또는 浮花, 六出花 등으로 묘사했으나 〈二月雪〉에서는 梅花에다 건주었다. 雪中梅야 말로 節操의 雅淡함을 최고로 표상하는 꽃이 아닌가? 雅操의 氣稟으로 梅花를 당할 者 있을까? 앞도 없는 영성한 줄기에 한 송이 다만 한 송이만 피어 있는 그 자태 그 양 징스러움 文人花의 상징으로 충분한 것이리라. 二月에 훔날리는 눈송이를 매화로 싯뜻 바꾸는 그 內心은 일단 믿어 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梅花를 노래한 작품 이규보 시대에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음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규보의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한다. 그런데 이 〈二月雪〉에서는 梅花를 노래하고 있다. 매화가 너무 흔한 것인가? 훔날리는 눈송이가 모두 매화라니 그러나 매화야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매화의 절조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탈이지. 「梅一生寒不賣香」.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래도 이규보는 구레나루의 흰빛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걸리는 것인가? 〈炤鬢有感〉<sup>14)</sup>을 보기로 한다.

서리와 눈이 만물과의 관계는,  
 가을과 겨울 각각 맡은바 있는데,  
 어찌하여 구레나루의 눈빛은  
 한번 불고 나니 떠날 줄 모르네.

14) 同註 11).

霜雪之於物，秋冬各有司。  
如何人鬢上，一着不曾離。

嘆老의 心情이 어쩔 수 없이 짙게 베어 있는 작품이다. 서리는 가을에, 눈은 겨울에 내린다. 각각 맡은 바 다르다. 서리는 겨울엔 없고, 가을엔 눈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대체로 가을엔 눈이 없고 겨울엔 서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레나루에 생긴 허연 빛같은 한 번 달라붙더니 떠날 줄을 모른다. 눈빛과 구레나루의 흰빛은 항상 짝을 이루어 다닌다. 그러나 한 번 늙어 버리면 回春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할 일은 많고 아쉬움도 많은데……. 한탄만 늘어갈 뿐이다. 그러나 늙음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눈을 저만치 두고 보는 태도도 필요할 것이다.

### Ⅲ. 袁安壯雪

袁安壯雪은 袁安이 눈을 壯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되고, 袁安이 눈 때문에 壯하게 되었다고 해도 되고, 袁安의 장한 눈이라고 해도 된다. 눈이라면 약방의 甘草처럼 따라 다니는 人名이다. 袁安을 詩에 넣은 경우를 본다. <十一月見門前雪積有作><sup>15)</sup>이란 시다.

문 앞에 눈이 석 자나 쌓여,  
은 빛 영마루 어찌 이리 깊숙한가?  
아이들 추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누가 눈덩이 굴러 바퀴 만들려고 할까?  
막지도 않았는데 문 오히려 잠겨 있고,  
아직도 한 사람 오지 않네.

15) 東國李相國後集 卷第六 古律詩. 後集으로 略稱함.

케으른 아이 잠시 눈을 쓸어서  
 실 같이 가는 길이 겨우 새로 열렸네.  
 원안이 죽지 않았다면,  
 위로하려는 손님이 찾아 오겠지.  
 門前雪三尺, 銀嶺何麟駒.  
 兒寒不猶閉, 誰肯輟爲輪?  
 不杜門猶閉, 尙無一箇人.  
 僮僕且暫掃, 略開線路新.  
 袁安若不死, 曾有唁來賓.

袁安의 字는 邵公으로 汝南 汝陽人이다. 孝廉으로 薦舉되어 剛直한 處事로 推仰받던 사람이다. 그러나 悲壯한 얘기가 전하고 있다. 큰 눈이 내려 한 길(丈) 넘게 쌓였다. 洛陽승이 몸소 나서서 시찰하고 다녔다. 사람들이 모두 눈을 쓸고 나왔는데 밥을 빌어 먹는 사람을 보았다. 원안의 문 앞에 와 보니 사람이 다닌 길이 나 있지 않았다. 안이 이미 죽었겠군 하면서 사람을 시켜 눈을 쓸고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 원안이 뻗뻗한 채 누워 있었다. 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니까 안이 큰 눈으로 사람들이 모두 굶고 있는데 남에게 밥을 달라 할 순 없지 않느냐? 고 했다. 낙양령이 그 뒤에 안이 賢하다 여기고 천거하여 효렴으로 삼았다.<sup>16)</sup>고 한 얘기가.

한 길(丈) 넘게 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모두 밥을 굶었다. 이웃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은 사람도 있었다. 洛陽승이 순찰할 때 원안은 자기 집에서 뻗뻗한 몸으로 누워 있었다.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모두 굶는데나마져 밥 빌러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人情千里에 줄

16) 袁安, 列傳 第三十五. 後漢書 卷第四十五. 「註四. 汝南先賢傳曰: 時大雪積地丈餘, 洛陽令身出 案行. 見人家皆除雪出 有乞食者. 至袁安門 無有行路. 謂安已死. 令人除雪入戶. 見安僵臥. 問何以不出. 安曰: 大雪人皆餓. 不宜干人. 令以爲賢. 舉爲孝廉也.」

밥은 없고 마음은 아프고…….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이웃집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悲壯한 일인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 일쫓데 말이다.

이규보 72세 때의 작품이다. 30代, 50代의 눈을 거쳐 70代의 눈은 또 다른 一面을 보여 주고 있다. 이규보 자신이 원안이 된 기분인지 모르겠다. 옛날엔 七十에 致仕한다. 致仕後 2년이 흘러갔다. 가난한 이규보.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른다. 「袁安若不死, 曾有暗來賓」. 원안과 자신을 同一視한 것일까? 〈十一月三日大雪〉<sup>17)</sup>을 보자.

절후 이미 대설을 침범했으니(대설에 다달았음).

이 눈은 지독하다 할 수 없지.

첫 눈이 이와 같으니,

남향 전이나 정월에 흰 눈 세차레 안 내리는 것 걱정하겠는가?

밤 깊어 단 잠 들었는지라.

눈꽃송이 흩날리는 것 볼 수 없네.

창문을 씻는 소리 듣지 못했더니,

지개문 열자 쌓인 눈 놀랐네.

구중궁궐 깊은 곳 조회하는 자리,

축하하는 춤 붉은 소매 자락 알만하네.

나 같이 늙은 퇴물이야.

의당 손벽이나 친다네.

節已侵大雪(已侵入大雪節), 此雪未云劇.

初雪已如此, 何憂不三白.

夜深睡正甘, 不見飛花色.

酒窓猶未聞, 開戶方驚積.

遙知紫宸朝, 舞賀朱袂絕.

如予老退者, 宜以手自拍.

17) 後集 卷第七. 古律詩.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이듬해 풍년 든다는 말이 있다. 깊은 밤 단잠으로 창문을 뿌리는 눈 소리도 듣지 못하다가 문을 열고 쌓인 눈을 볼 때는 정말로 놀란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 첫눈이 오면 조정에선 萬朝百官이 임금에게 賀禮를 行한다. 鄭知常의 詩가 그런 것을 印象 깊게 묘사하고 있다. 이미 致仕한 이규보. 지난 날이 생각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처지. 그저 멀리서 박수나 보내는 수밖에 없다. 「遙知紫宸朝, 舞賀朱袂絕」은 과거 자기도 朝班에 서서 行했던 일. 지금은 그림의 떡이다. 「如予老退者, 宜以手自拍」. 「宜」字가 인상적이다. 停年 退任 뒤에는 「宜」를 강조하고 있다. 王權의 神秘로움을 새삼 느끼게 한다. 원안의 처지라도 되기를 은연 중 바라는 마음은 「宜以手自拍」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규보는 73, 74세까지 雪詩를 계속 짓고 和次韻한다. 回文詩의 形式 織錦詩의 形式을 빌어서, 李需 등과의 往復이 그것이다. 종이가 남으면 그 빈 자리에 또 시를 쓴다. 74세에 쓴 雪詩에는 百戰에 대해서는 言及하고 있다. 〈未有餘紙又以一絕寄之〉<sup>18)</sup>를 보기로 한다.

많은 사인들이 내 시에 화답했으나,  
 두어 편 짓고는 행복 깃발 드는 법인데,  
 그대는 통렬한 노력으로 갈날을 날카롭게 세워,  
 수 많은 싸움터에서 기특한 작품을 금방 지어내네.(기특함은 長篇廻文을 말함).

君은 가장 아끼는 門人 中의 한 사람인 李需를 말한다. 李需는 〈東國 李相國文集序〉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李需와는 長篇廻文으로 三十韻이나 되는 작품을 거침없이 써 냈기 때문에 이규보가 그렇게 칭찬한 것이다. 일종의 詩才 자랑이라고도 하겠는데, 어쨌든 죽는 날까지 詩를 짓

18) 後集 卷第九. 古律詩.

고 또 雪詩를 그렇게 많이 지은 것은 白雪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李奎報는 崔氏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겠으나 自負도 강했던 文人이기에 험난한 一生을 살았던 것이다. 63세에 狷島에 定配되기도 했다. 큰 잘못도 없는데, 〈上晉陽公并序〉<sup>19)</sup>에서는 「僕本無立錐之地, 唯仰俸祿……方此之時忽蒙惠送白粲白炭……」이라고 했다. 매우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江華島로 君臣이 피난했을 때 羣臣들이 자기의 田庄 마련에만 血眼이 된 진풍경을 詩로 罵倒한 예도 있다. 半으로 접어 주고 생각해도 재물을 많이 모은 것 같진 않다.

그래서 袁安이 되어 보기라도 하겠다고 했던가? 강한 사람도 때론 응석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袁安에 대한 생각은 자비심 측은지심이 心底에서 밀어 올리지 않으면 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규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性情이 발동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70대에 와서 쓴 雪詩는 長篇廻文의 形式이 많다. 戲作으로 誇逞 矜負의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눈을 부뜰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를 지었다는 것은 뭔가 詩人으로서의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三十대에 友情을 노래할 때 눈을 이끌어 와서 시를 지었다. 50대엔 눈을 보고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잘하면 기상학자라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고 이규보 자신이 詩人이었기에 기상학으로까지 발전시키진 못했다. 三十대의 雪詩가 남의 故事를 引用한 用事詩라고 할 수 있다면 50대의 雪詩는 눈을 보고 꿰질기게 물어보는 곧 눈을 自己化코자 하는 노력의 시기였다고 하겠다.

當代와의 力關係에서 「新」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詩史 그 자체로도

19) 後集 卷第八, 古律詩.

이규보 당시는 새 바람이 일어야 할 때였는지 모른다. 서로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餘他の 詩人들이 陳腐한 雪詩를 지을 때 새로운 의미를 담은 시를 쓰고자 애를 썼던 시인이다. 그러나 王權神話가 너무나 엄청나게 당대 지식인을 짓누르고 있었기에 假衰安이라도 되어 응석을 부리고 싶었던 것일까?

潛伏底流하던 惻隱之心 慈悲心 悲壯心이 미쳐 발동·개화·결실하진 못했지만 희미하게나마 이규보의 영혼에서 태동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태동에서 끝났을 뿐 개화 결실은 그 다음 세대를 기다려야 했던가? 눈같이 새하얀 粹然한 눈 같은, 그런 心機는 새로운 認識의 시대를 만나야만 했던 것이다. 人類精神發展過程에 한 가닥 足跡을 남긴 사람 이규보. 그 純白의 心機는 「好待主人至」 그것이었던가? 지금도 눈을 노래하는 시인은 있는데, 「莫教風掃地」해야 될 것이다. 純白의 雪詩가 나오기 위해서는, 純白의 人文精神이란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